

금당 뒤 눈맛 좋은 대숲 병풍처럼 둘러



신라 하대의 도의선사(道義禪師)는 육조 혜능의 남종선을 신라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그의 선지는 상수 제자인 염거화상을 거쳐 3대 보조선사(普照禪師)에게로 전수되었다. 보조선사는 전남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를 창건하고 가지산문을 열었다.

그 산문을 통해 고려 왕건의 후원자였던 행미선사(行微禪師)와 가지산 석남사를 창건한 진공선사(眞空禪師)가 배출되었다. '가지산'이라는 지명과 함께 석남사에 도의국사 부도탑이 있는 것도 그런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가지산은 해발 1,240미터로, 백두대간에서 남으로 내려온 낙동정맥의 영남 팔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의 황열로 치면 백병산(1,259)-통고산(1,067)-백암산(1,004)-주왕산(720)-단석산(829)이 그의 형들이요, 고현산(1,033)-신불산(1,209)-천황산(1,189)-영취산(1,050)-원효산(922) 등 영남 7악이 모두 그의 아우들이다.

그와 그의 아우 산들을 합쳐서 흔히 '영남의 알프스'라고 일컫는데, 가지산 도립공원이 바로 그 산군(山群)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양을 지나 석남사가 가까워지면서 멀리 가지산이 바라보인다. 1천 미터를 훌쩍 넘는 높이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위의 봉우리들이 모두 그만큼만큼 높이를 자랑하다보니 굳게일락같은 장쾌함은 없다.

일주문에서 청운교까지 80~100여 년 노송들 울창

석남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청운교까지 좌우로 노송들이 울창하다. 일제 때 송진을 채취한 생재기들을 안고 있는 것만 봐도 80-100년을 오르내리는 노령이다.

우리나라 소나무의 형태를 지역적으로 나눌 때, 경주 중심으로 울산과 포항지역 소나무를 흔히 안강형 소나무라고 한다. 안강형 소나무의 특징은 키가 작고, 줄기가 굵으며, 수관이 빈약한 난쟁이형 소나무이다. 그러나, 이곳의 소나무들을 지역적으로 단순히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키도 크고, 줄기도 비교적 곧고, 수관도 곧아서 재목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석남사 소나무의 원형은 인홍스님 부도 주변 등등 곳곳에서 관찰된다.

소나무 군락에 이어 눈에 띄는 것은 계곡 주변의 서어나무 군락이다. 수령이 지긋하여 줄기의 모양이 저마다 기묘모양이다. 일주문과 청운교 구간의 큰 나무들로는 굴참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와 같은 참나무들과 전나무, 너티나무, 말채나무, 개서어나무 등이 있다. 그 밖에 노각나무, 팔배나무, 개오나무, 때죽나무, 당단풍나무, 함박꽃나무, 물푸레나무, 산벚나무, 비목, 노린재나무, 사방오리나무 등이 어울려져 있다.

서어나무와 개서어나무는 매우 비슷하다. 잎의 끝이 꼬리처럼 길고 잎의 표면에 털이 없으면 서어나무, 잎의 끝이 예두로 되는 경향이 있고 잎의 표면에 털이 있으면 개서어나무이다. 서어나무는 북쪽지방에, 개서어나무는 남쪽지방에 많다. 대체로 서어나무는 산의 아랫쪽에, 개서어나무는 좀 높은 곳에 자란다.

오른쪽 탕자나무 생울 안에는 꽤 넓은 밭이 자리하고 있다. 석남사는 수행처답게 '一日不作 一日不食(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정규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 밭은 대중들이 직접 농사 짓는 곳이다. 이곳 밭고도 백장정규의 현상이 여러 군데 있다.

경내로 들어서는 길목에 청운교가 자리하고, 그 아

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다. 울산 태화강 100리가 여기서 비롯된다.

'울주, 밀양, 청도의 꼭지점인 해발 1,240미터의 가지산에서 서남쪽으로 발원하여 석남사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태화강은 산이 깊고 울창하여 웅만하한 홍수에도 물빛이 흐리지 않았다'

김원일의 장편소설 <늘푸른 소나무>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지금도 여전히 논픽션이다.

청량한 물줄기는 상북-언양-범서를 지나 울산 시내를 관통하여 울산만으로 흘러든다. 예전에는 연어가 태화강을 오르내렸다. 1960년대 울산이 공업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수질이 개선되면서 부랴부랴 연어들이 회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운교 아래로 계곡 따라 내려가면 화강암 암반이 층층이 깔려 있고, 거기에 크고 작은 소폭들이 물을 쏟아내고 있다. 한겨울인데도 날씨가 푸근해서 얼음 녹은 물 소리가 청아하다. 몇 마리의 버들개들이 조심스레 나와 놀고 있다.

청운교 아래 1급수 어종인 버들개 서식 생태 관심 필요

버들개는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버들치와 외모가 너무 비슷해 구별하기 힘들다. 두 종의 차이점이라면, 버들치에 비해 버들개는 비늘이 작고 많으며, 주둥이는 비교적 길고, 주둥이 끝이 약간 뾰족한 편이다. 그렇다고해도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분이 잘 안 된다. 1급수 어종이라 수질이 민감한 만큼 석남사에서 방생 차원에서 버들개의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석남사에서 가지산 능선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는 길과 다리를 건너지 않고 심검당 앞을 지나 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그것이다.

금당은 옛 동인암 터에 세워진 선방이다. 금당 앞으로는 노보살 같은 높은 냇나무가 자리하고, 뒤로 눈맛이 좋은 대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대웅전 앞 화단 좌우에 두 그루의 금목서가 서 있다. 늘푸른 난대수종이지만, 추운 겨울이라 기가 많



가지산 석남사 금당.

이 죽어 있다. 이 밖에 경내에서 볼 수 있는 상록수종으로는 호랑가시나무, 서향 등이 있다.

대웅전 뒤에는 엄나무로 만들었다는 구유가 있다. 72센티나 되는 지름을 미루어보면 이 나무가 살아 있을 때는 지름이 적어도 1미터, 키는 낮아도 25미터는 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정도 품집의 엄나무는 신목(神木)이 아니고는 요즘 찾아보기 어렵다.

보물 제369호인 도의국사 부도탑은 대웅전 뒤로 호젓한 공간에 모셔져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 있는 보조선사 부도탑과 흡사하다. 도의선사의 손제자가 보조이니 극히 당연한 일이다.

광나무가 부도 주변의 생울로 둘러쳐져 있다. 광나무는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아담한 수령의 관목이다. 수형과 꽃 모양과 열매가 쥐뿔나무를 많이 닮았지만, 사철 푸른 아열대 나무라는 점이 다르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정질을 지키는 여자같다고 하여 '정목(貞木)' 또는 '여정목(女貞木)'이라 불려왔으니, 비구니 사찰에 어울리는 조경수라 하겠다. 또, 생장이 빠르고 맹아력이 강해서 수령을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으므로 남부지방 사찰에서 생울타리를 조성하는데 알맞은 나무라 하겠다.

석남사에는 선방이 셋 있다. 1년 결사도량으로 쓰는 금당선원과 안거 수좌들의 공간인 정수선원과 노장들의 선방인 심검당이 그것이다. 심검당은 경내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해 마치 별도의 암자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심검당 뒤 골짜기에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부도전 조성공사인 듯 보인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사 후에는 생태복원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석남사 주변의 겨울철 조류상은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박새류와 딱따구리류가 우점하는 가

운대 때까지 등 몇 종류가 사하촌 주변에서 관찰된다. 때까치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는 텃새이다.

여름에는 산속에서 번식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야산의 낮은 관목림으로 내려와 먹이를 구한다.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먹이를 찾아내려오는 무리가 있어서 개체가 더 늘어난다. 먹이를 잡아 나무가지 등에 꽂아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

가지산 정상 30만평 철쭉 군락지 노거수 44그루 천연기념물 지정

가지산 석남사 지역의 대표적인 군락으로는 아래쪽부터 서어나무, 소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군락이 있다. 소나무 군락에는 철쭉, 조릿대, 굴참나무들이 함께하고, 신갈나무 군락에는 미역줄나무와 생강나무 등이 함께 한다.

석남사를 지나 옥류천을 끼고 능선으로 오르는 구간에는 졸참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굴참나무, 가막살나무, 물푸레나무, 노박덩굴, 소대나무, 서어나무, 철쭉 등이 관찰된다. 군락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노각나무도 많이 눈에 띈다.

가지산 철쭉 군락지는 울주군과 밀양시와 청도군의 경계를 이루는 정상 주변에 약 30만평이다. 그 안에 약 20만 그루의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군락지 안에는 키가 5미터를 넘고, 수관의 폭이 10미터를 넘는 수령 350-500년의 노거수 철쭉 44그루도 있어서 지난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 제 46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몇 해 전 산불로 마지막 남아있던 주목이 죽은 뒤 뜻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가지산의 주목 복원사업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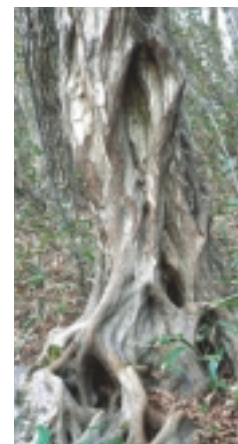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http://cafe.daum.net/templeeco



석남사 옥류천.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줄기.

한국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웅변대학

제1기생 모집

◆ 본 대학 총장 : 제주도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해인스님 ◆ 본 대학 학장 : 백용사 주지 해봉스님

부처님께서 사방세계 무명 중생들을 제도할 적에 진리(8만 대장경)를 부르짖는 불같은 사자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오늘의 연단에 선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흥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사자후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웅변수련과 교육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코저 함.

모집인원	자 격	제출서류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
· 웅변학과 50명 · 특별반 0명	· 각종단체(비구, 비구니, 법사) · 말을 못해 꼭 웅변을 배우고자 하는 재가 불자 · 기업인, 공무원, 사회, 정치지도자 등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2장 · 슬러즘 사본 1장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까지(3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까지(3시간) · 총강의 시간 : 6개월(144시간) · 강의 장소 : 백용사 대법당

내 용	교 수
· 웅변(법문, 연설, 식사, 사회)이론과 실기 · 원교성법(각종행사, 원교내용)이론과 실기 · 일기웅변(3분 스피치) 소창 법문 · 강령(개인 장전, 단정)	· 제주도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본대학 총장 해인스님 · 백용사 주지 본대학 학장 해봉스님 · 웅변을 30여년간 해 오신 해봉스님 최강 · 린스님, 웅변교수 초청 특강

4. 입학개강 일시 : 2007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백용사 대웅보전
5. 등록금(6개월) : 일금 육십만원정
6. 본대학 이수시 : 본 대학 소정 졸업장 및 강사 자격증 수여
7. 원서 교부서 : 2007년 1월 31일부터 ~ 2007년 3월 4일까지(선착순)

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 531-14 백용사 전화 : 051)204-0477, 018-565-2042 / 인터넷 : www.baekyongsa.com

대한불교웅변대학총장 해인

수행 다이어트 특수 비법 공개!

기회 3000배 용맹정진

샘솟는 힘! 맑은 머리! 상쾌한 몸!

발세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리지 않으며, 힘이 솟아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 유일의 3000배! 500만 배 성장한 청진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7년 1월 27일(토) 저녁 9시 ~ 2007년 1월 28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침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면복(100% 면 소재 하의)2매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산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최화정 50M 경우빌딩 4층
※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승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